

‘명사+동사’ 합성구의 형태론적 특성

—<동사 합성구 사전>의 거시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한 영 균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1. 이 글은 ‘명사+(조사)+동사’)의 구조로 이루어진 합성구²⁾의 형태론적 특성을 정리하고, 사전 편찬의 관점에서 이들 합성구의 처리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현대국어 동사합성구사전>의 표제항 선정을 위

- 1) 이 글에서의 동사는 상태동사(형용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2) 합성구라는 용어는 이들 ‘명사+(조사)+동사’ 구성이 합성어적 성격과 구 구성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만든 용어이다. 조사 부분을 ()로 묶은 것은 이들 구성에서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조사 생략형이 하나의 합성어로 인식되기도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김창섭(1996)에 따라 단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따라서 합성어란 이익섭(1975)의 용어로는 복합어에 해당한다.

단어	{	단순어 : 하나의 어기로만 이루어진 단어
		복합어 { 파생어 : 직접 구성 성분 중의 하나가 접사인 단어 합성어 : 직접 구성 성분이 어기인 단어

한 예비 작업의 하나이며, 나아가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이를 위한 한국어 사전에 포함될 동사 합성구의 목록 작성 및 사전적 처리 방안 도출을 위한 준비작업이다.³⁾

1.2. 이 글에서 검토 대상으로 하는 ‘명사+(조사)+동사’ 합성구란 관용적 의미를 지니는 단어간 언어 형식multi-word lexical unit 중 ‘가슴(이) 뜨끔하다, 목(을) 자르다, 바가지(를) 굶다, 입맛(이) 쓰다’ 등과 같이 ‘명사+(조사)+동사’의 기본구조를 지닌 것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글에서의 논의의 대상은 관용적 의미를 지니는 숙어⁴⁾와 연어 collocation⁵⁾ 구성에 한정되며 직설적 의미로만 사용되는 ‘명사+(조사)+동사’ 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용적 의미를 지니는 국어의 ‘명사+(조사)+동사’ 합성구는 동사 및 그 동사의 논항이 되는 명사가 구 구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영어의 구동사phrasal verb와 유사하다. 그러나 영어의 구동사는 “동사와 부사 혹은 첨사성 전치사의 조합”으로 정의되는 데 비하여(*The Collins COBUILD Dictionary of Phrasal Verbs* 1989: iv), 여기서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어의 합성구는 동사 및 동사의 논항이 되는 명사 그리고 논항의 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이루어지며, 조사가 생략된 형태가 하나

3) 합성구 사전의 편찬을 위해서는 ① 표제어의 선정을 위한 기준 설정 및 적용의 실제 ② 개별 항목의 사전적 처리 방안과 그 실제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지면 관계 상 전부를 다루지는 못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을 준비 중이다.

4) 숙어에 대한 정의는 논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안경화(1989)의 정의를 따른다.

5) 연어란 “고정적으로 공기하지만 구성 성분의 의미의 조합으로 전체 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어휘 연속체(Cruse(1986), 임지룡/윤희수 공역 『어휘의미론』 p. 57)”, 혹은 “통사 규칙에 의해 구성되기는 하지만 어휘적 면에서 특별히 긴밀하고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 둘 이상의 단어의 연쇄(Cop 1989)”를 가리키는데, 특히 Cruse(1986)에서는 연어 중에서 어휘 연속체의 결합이 특별히 공고하여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것을 결속 연어라고 불렀다. 이 글에서 검토 대상이 되는 합성구는 결속 연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3장 참조.

의 합성어로 인식되기도 한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또 이들 합성구는 구성상 ‘서술명사+기능동사’ 구성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 ‘명사+(조사)+동사’ 합성구는 선행하는 명사가 서술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술명사+기능동사’ 구성과 구별된다. 또 기능동사 구성은 전체 구의 의미를 구를 구성하는 요소의 의미를 통해 유추할 수 있으므로 관용 표현에 속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차이점이다. 이 글에서는 기능동사 구성은 논의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⁷⁾

1.3. 이 논문에서 검토대상이 된 ‘명사+(조사)+동사’ 형식의 합성구는 약 4,100 항목이며, 여기에 출현하는 명사는 2,000여 종, 동사는 750여 종에 달한다.⁸⁾ 국어의 어휘부를 구성하는 전체 항목과 비교할 때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양인 것이다. 더구나 이들 합성구는 사전 편

6) 합성구의 선행 명사 중에는 서술성 명사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합성구에서 서술성을 드러내는 것을 찾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7) 국어의 기능동사에 대한 논의는 어휘문법을 배경으로 한 연구에서 기능동사라고 번역되는 support verb로서의 그것과 생성문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경동사라고 번역되는 light verb로서의 그것 두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능동사라는 용어를 이선희(1993)에서와 같이 “자신의 목적어를 하위범주화하지도 못하고 서술어로서의 기능도 지니지 못한” 동사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한다.

8) 이는 기존 국어사전에 특정 표제항의 하위 항목으로 등재된 ‘명사+(조사)+동사’ 형식의 합성구와, 표제어로 등재된 합성동사를 검토하여 얻어진 합성구의 조사 생략형 중 관용적 의미를 가지는 것의 목록을 합하고, 거기에 약 100만 어절의 현대국어 코퍼스를 분석한 결과 얻어진 자료를 더한 것이다. 사전의 표제어로 등재된 합성동사를 이러한 유형의 합성구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관용적 의미를 지닌 합성구인지 아니면 단순한 연어 구성인지에 대한 분석자의 판단에 따라 자료의 가감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체로 현대 한국어의 ‘명사+(조사)+동사’ 합성구의 숫자는 4,000 - 5,000 사이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의 검토에 사용된 자료는 필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정리한 것이며, 향후 별도의 자료집으로 간행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검토를 받을 기회를 가지기를 기대한다.

찬, 특히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이들을 위한 한국어 사전 편찬의 경우에는 작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는 요소이다. 외국어 혹은 제2언어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이들을 위한 사전에서는 사전 사용자의 한국어에 대한 직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의 거시구조 및 미시구조의 구성에 그러한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바,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 합성구의 형태론적 특성에 대해 포괄적이면서도 정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의 동사 합성구의 형태론적 특징의 정리는 체계적 거시구조 구성에 전제 조건이 되는 변이 양상의 사전적 수용과 관련된 문제점의 정리에 주안점을 둔다.

2. ‘명사+동사’ 합성구에 대한 기존 연구

2.1. 본고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관용적 의미를 지니는 ‘명사+(조사)+동사’ 합성구를 다룬 글은 그리 많지 않다. 유형 분류 혹은 단어 형성의 관점에서 이들을 다룬 몇 편의 글이 있을 뿐이다.

2.2. 이희자(1994) 및 양영희(1995)에서는 본고에서 검토대상으로 삼고 있는 ‘명사+동사’ 형식의 합성구를 다른 관용표현과 함께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다룬 바 있다.

이희자(1994)에서는 국어 관형 표현을 사전적 처리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해당 표현을 구성하는 요소의 의미의 조합과는 전혀 다른 제3의 의미를 가지게 된 숙어와 구성 요소의 의미가 부분적으로 확장되어 또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 의미적 연어의 두 가지로 가른 것이다. 양영희(1995)에서는 국어 관용 표현을 숙어, 결속 연어, 속담의 세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숙어와 결속 연어가 이희자(1994)에서의 숙어 및 의미적 연어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⁹⁾

이 글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자료들은 대체로 이희자(1994)에서의 속어 및 의미론적 연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3. ‘명사+조사’ 합성구의 형태론적 특징과 관련된 최근의 논의로는 고재설(1992), 시정곤(1993), 이선희·조은(1994) 등을 들 수 있다.¹⁰⁾

고재설(1992), 시정곤(1993)의 논의는 ‘명사+동사+접사’의 구조로 이루어진 합성어의 생성과정을 다룬 것인데, 고재설(1992)은 ‘구두땀이’ 형 합성명사를, 시정곤(1993)은 ‘거침없이’ 류의 부사를 다루고 있다. 이들의 결론은 공통적으로 이들 구성에서의 조사의 생략과 합성어의 생성 과정을 통사부의 핵이동head movement 및 통사적 접사의 설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선희·조은(1994)에서의 논의의 초점은 ‘냄새나다, 녹슬다’와 같은 ‘명사+비대격동사unaccusative verb’ 구성에서의 조사 생략형, ‘진출하다, 확정짓다’ 등 ‘명사+기능동사’ 구성의 조사 생략형, 그리고 ‘명사+계사’ 구성이 형태론적 층위에서 다루어질 것이 아님을 밝히는 데에 있었다. 즉 이들 구성을 고재설(1992), 시정곤(1993)과 마찬가지로 핵이동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 생략형의 생성이 형태론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파생이나 합성어도 아니므로 사전에 등재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계사 구문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2.4. 고재설(1992), 시정곤(1993) 및 이선희·조은(1994)의 논의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통사적 접사를 설정하는 것이 합당한

9) 구체적인 자료의 판단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양영희(1995)에서의 속어와 결속연어의 구분 기준은 합성구 내부에 다른 요소가 개재할 수 있는가 여부다(양영희 1995 : 185). 그러나 속어로 제시한 예 중에도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실제 자료의 분류에는 직관의 차이가 개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양영희(1995 : 195)의 22. 나)의 예들이 대부분 그러한 것이다.

10) 이들 연구 모두가 여기서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는 ‘명사+조사’ 합성구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검토 대상자료가 안고 있는 기본 문제는 같다.

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 생략형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이다. 첫째 문제는 본고의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둘째 문제에 대한 이들의 논의는 3.2.에서 다룬 ‘명사+동사’ 합성구에서의 조사 생략형의 생성 과정에 대한 해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조사 생략형에 대해서는 3.2.에서 다시 다룰 것인데, 우선 지적해 둘 것은 합성어의 생성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합성어의 사전적 처리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항상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론적으로는 규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합성어는 일일이 사전의 주표제어로 등재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그들 합성어가 일반적 유형의 합성어와는 다른 형태론적 행태를 보인다면 그들의 생성 규칙이 국어에 대한 직관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 국어에 대한 직관이 없는 이들을 위한 사전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합성구의 형태론적 특징

3.1. ‘명사+(조사)+동사’ 합성구의 내적 구성

3.1.1. 본고에서 검토 대상이 된 ‘명사+(조사)+동사’ 합성구는 하나의 동사와 하나의 명사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다. 즉 동사와 그 동사의 논항이 되는 명사 그리고 논항 명사의 격을 드러내는 조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 명사구가 둘 이상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 후행 동사가 둘 이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실현되는 격조사로는 후행 동사의 하위범주에 따라 ‘-이, -을, -에, -에서, -로’ 등이 있는데, 주격조사 ‘-이’와 대격조사 ‘-을’은 흔히 생략될 수 있다(3.2. 참조).

3.1.2. 합성구의 선행명사는 약 2,000 가지가 되는데, 자립성을 지닌 단일어나 합성어 명사 하나가 동사에 선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확대된 명사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명사구의 구조적 확대¹¹⁾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합성구의 선행 명사구를 수식하는 관형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둘 이상의 논항 명사구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전자가 합성구를 이루는 명사의 문법적 특성 때문이라면, 후자는 동사의 속성상 둘 이상의 논항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전자에 속하는 것을 유형별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4)의 예들은 그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¹²⁾

(1) 한가락을 하다	한귀로 흘리다	한다리를 끼다
한뿔을 잡다	*한손을 놓다	한자리를 하다
*한잔을 내다	한턱을 내다	한턱을 먹다
*한풀이 꺾이다	*한풀이 죽다	*두다리를 뺀다
두다리를 걸치다	두말을 하다	*두손을 들다
*두손을 털다	*네굽을 놓다	네발을 들다
*네팔개를 치다	다섯손가락에 들다	열일을 제치다
(2) *가는귀가 먹다	된서방을 만나다	*만눈을 팔다
*판사람이 되다	판전을 피우다	판청을 부리다
*마른침을 삼키다	*빈손을 털다	*빈주먹을 쥐다
선소리를 하다	*선바람을 쐬다	*쓴맛을 보다
*쓴입을 다시다	쓴잔을 마시다	*원고개를 짓다
원새끼를 꼬다	잔걸음을 치다	*잔짜를 부리다
*잔부끄럼을 타다	*잔머리를 굴리다	*잔빠가 굶다

11) 여기서의 구조적 확대란 통사적 절차에 의한 일반적인 구의 확대와는 달리 관용구가 그 관용적 의미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 요소 이외의 요소를 반드시 요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수식어의 첨가, 접속, 내포 등에 의한 구의 확대는 수의적인 것으로, 확대되는 요소가 생략되더라도 관용구로의 의미 유지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경우에는 관용구로서의 의미가 유지되지 않거나 합성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12) 이들 예 중에서 *를 붙인 것은 명사를 수식하는 요소 없이도 관용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 경우 각 합성구의 의미는 명사를 수식하는 요소가 있을 때의 의미와 달라진다.

- | | | |
|---------|----------|----------|
| *잔손이 가다 | *찬물을 끼었다 | *찬바람이 일다 |
| 찬밥을 먹이다 | *큰마음을 먹다 | *큰불을 놓다 |
| *큰상을 받다 | 큰소리를 치다 | *큰코를 다치다 |
- (3) (도시·미국·서울…) 물을 먹다
 (소매·손아귀·손바닥) 안에서 놀다
 (합격·이사·독남…) 턱을 내다
 (세, 다섯, 열) 손가락에 들다
 (세, 다섯, 열) 손가락을 꼽다
- (4) 남의 집을 살다 남의 달을 잡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
 없친 데 덮치다 바람부는 대로 살다 눈코 뜰 새 없다
 달다 쓰다 말이 없다

(1)의 예는 수관형사 ‘한,13) 두, 네’ 등과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명사구가 선행 명사구를 이룬 것이고 (2)의 예들은 접두사, 형용사의 관형사형, 관형사 등과 명사가 결합하여 명사구를 이룬 것인데, 사전에서의 (1) (2) 예들의 처리에는 유사한 어려움이 있다. 거시구조 구성의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할 이들 합성구의 구조 분석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선행 명사구의 분석과 관련된 문제. 특히 선행 명사구를 구 구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합성어로 파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합성구의 명사구를 구성하는 요소 중 선행 요소의 문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들 예의 명사구를 하나의 단어로 다루는가 아니면 둘 이상의 어휘 단위의 복합 구성으로 분석하는가는 거시구조 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명사구 전체를 한 단어로 간주하는 경우 그것을 그대로 사전의 표제어로 등재한 후 그 표제어의 미시구조의 일부로 관용구를 등재하는

13) ‘한뫼을 잡다, 한턱을 내다, 한자리를 하다’ 등의 ‘한’은 ‘하나’라는 의미와 ‘크다, 많다’ 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후자의 의미를 강조한다면 ‘한’은 수관형사가 아닌 접두사로 다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크게 한뫼을 보다, 크게 한턱을 내다’ 등이 가능하므로 ‘하나’의 의미를 더 중시하여 수관형사로 다룬다.

것이 일반 언어사전의 기본 처리방식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명사에 선행하는 요소의 처리에 따라 전체 합성구의 사전적 위상이 달라질 것이다. 즉 (1)의 예들은 수관형사 ‘한, 두, 네’ 등의 아래에 전체 구를 용구로 등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¹⁴⁾ (2)의 예들은 명사구의 선행 요소인 ‘가는, 된, 탄, 마른, 빈, 선, 쓴, 원, 잔, 찬, 큰’ 등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합성구의 위상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요소가 관형사인지 접두사인지 아니면 용언의 관형형인지를 판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¹⁵⁾

둘째, 사전의 거시구조 구성 상 전체 합성구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 이는 합성구들을 각각 독립된 표제항으로 등재할 것인가 아니면 합성구를 이루는 어휘소(명사, 동사) 중의 하나에 딸린 단위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¹⁶⁾ 여기에는 앞에서 이

14) 그러나 기존의 국어사전에서는 (1)의 예들조차 일관성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한글학회에서 펴낸 <우리말큰사전>의 경우만 하더라도 주 13)에서 예를 든 ‘한몫을 잡다, 한자리를 하다, 한턱을 내다’를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 ‘한몫을 잡다’는 ‘한몫’을 한 단어로 인정하여 표제항으로 등재하고 합성구를 그 하위항목으로 처리한 반면, ‘한자리를 하다, 한턱을 내다’는 수관형사 ‘한’의 하위항목으로 등재한 것이다. 그러나 ‘한몫, 한자리, 한턱’이 달리 다루어질 만한 까닭을 형태 구성의 측면에서나 어휘의미론적으로 찾기 어렵다. 결국 관형구의 처리가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는 지적이 가능한 것이다.

15) 또다른 문제로 관형형으로 분석될 수 있는 예 중에는 일반 관형형과는 달리 서술적 용법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는귀가 먹다’의 ‘가는’, ‘선바람을 씌다’의 ‘선’, ‘잔손이 가다’의 ‘잔’ 등은 ‘가늘다, 설다, 잘다’라는 형용사와 의미상의 유연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귀가 가늘다, 손이 잘다, 바람이 설다’ 등에서 ‘가는 귀, 선 바람, 잔 손’ 등이 도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한정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류를 유현경(1996 : 235-252)에서는 ‘굳은 관형사형’이라고 부르고 그 특징을 검토한 바 있다.

16) 일반 사전에서는 후자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합성구 각각을 독립된 표제항으로 처리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 17) 참조.

야기한 선행 명사구의 처리 방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명사구의 선행요소의 처리와 합성구 전체의 처리 방식이 일관성을 지녀야 함은 물론이다.

명사에 선행하는 요소를 접두사로 다루는 경우 선행요소와 명사는 하나의 파생명사를 이루는 것이므로 독립된 표제항으로 등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합성구는 해당 파생명사 항목의 하위 구성요소가 될 것이고, 용언의 관형형 혹은 수관형사로 처리한 경우라면 해당 용언 혹은 수관형사의 하위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사전의 이들 관용구의 처리 방식을 보면 명사구 선행요소의 처리에서나 전체 합성구의 처리에서 일관된 원칙을 찾기 어렵다. 주 14)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일한 의미기능을 가지는 관형구를 달리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또 전체 합성구의 처리에서도 선행요소의 처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¹⁷⁾

(3)의 예들은 확장된 명사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들은 확장된 명사구를 이루는 두 요소 중 선행하는 요소가 없이는 관용적 의미를 지니는 합성구를 이루지 못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확장된 명사구를 하나의 어휘 단위로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즉 ‘물을 먹다’나 ‘턱을 내다’만으로는 관용적 의미를 지니는 합성구가 되지 못하는 한편, ‘서울물, 미국물’이나 ‘이사턱, 득남턱’ 등을 사전에 독립된 표제항으로 등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의 거시구조에서 이들 합성구의 처리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¹⁸⁾

17) (1), (2) 유형의 합성구는 선행 명사구를 하나의 단어(명사)로 다루고, 합성구 전체를 해당 명사의 하위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관성 유지라는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 명사구를 이루는 두 요소는 분리할 수 없거나 일반적인 관형 구성과는 달리 의미론적으로 두 요소의 의미의 조합으로 도출되기 어려운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또 주 14)의 ‘가는, 선, 잔’ 등과 같이 해당 관용구 이외의 용례를 찾기 어려워서 접두사로 처리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관형형으로 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4)의 예들은 논항 명사가 관형구의 수식을 받은 형태로만 관용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1) (2)의 것들과 같은 유형에 속한다. 즉 ‘남의 집을 살다, 남의 달을 잡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 등은 선행 명사구가 구의 형태이지만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것이므로 (2)의 관형형과 결합한 명사구와 같은 기준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얹친 데 덮치다, 바람 부는 대로 살다, 눈코 뜰 새 없다’의 경우 후행 명사가 의존명사라는 점이, ‘달다 쓰다 말이 없다’의 경우는 ‘달다 쓰다’라는 완형문이 수식어가 되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러한 형태를 ‘명사+(조사)+동사’ 합성구의 하위 유형에 포함할 수 있는가든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지만, 우선 자료로 제시해 둔다.

3.1.3. 합성구의 선행 요소가 둘 이상의 명사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5)~(9) 유형의 것들이 있다.

- | | | |
|----------------|---------------|------------|
| (5) 귀에 못이 박히다 | 눈에 불이 나다 | 눈에 흙이 들어가다 |
| 발등에 불이 붙다 | 입에서 젓내가 나다 | 코에서 단내가 나다 |
| 혀파에 바람이 들다 | | |
| (6) 가슴에 못을 박다 | 가슴에 손을 얹다 | 눈에 쌍심지를 켜다 |
| 이성에 눈을 뜨다 | 입에 거미줄을 치다 | |
| (7) 눈보다 동자가 크다 | 배보다 배꼽이 크다 | 주인보다 객이 많다 |
| (8) 코가 땅에 닿다 | 해가 서쪽에서 뜨다 | |
| (9) 코를 잡아도 모르다 | 코가 어디 붙은지 모르다 | |
| cf. 동서를 모르다 | 멋도 모르다 | 쥐빨도 모르다 |

(5) (6)의 예들은 제2 명사구가 후행 동사의 주격어인이 아니면 대격어인가에 따라 구분한 것인데 이러한 차이 외에는 대체로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 이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 지금까지의 국어사전에는 이러한 유형의 관용구를 등재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에서 관용구는 관용구의 첫머리에 오는 어휘 단위의 하위요소로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어휘로 고정되지 못한 단위는 사전에 등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① 이들 합성구의 선행 명사구는 후행 동사의 논항이 되는 명사구 하나와 처격 부사어로 이루어진다. 이때의 부사어는 후행 동사의 일반 용법에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지만, 관용적 용법의 '명사+동사' 합성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며, 반드시 제1 명사구로 나타난다(후술 참조).
- ② (5) (6)의 예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2 명사구의 격조사가 생략된 형태와 후행 동사가 하나의 합성동사가 되어 전체가 하나의 명사구를 수반하는 '명사+동사'형 합성구처럼 쓰이기도 한다.¹⁹⁾
- ③ 제1 명사구는 원칙적으로 생략될 수 없으며, 제1 명사구가 생략되는 경우 두 개의 명사구로 이루어진 합성구가 지니는 본래의 관용적 의미를 상실한다(못을 박다, 바람이 들다 등).²⁰⁾
- ④ (5) (6)의 예들은 모두 합성구를 이루는 구성 요소의 어순을 바꿀 수 없다.²¹⁾ 특히 (5)의 예들은 국어의 일반 어순과는 달리 부사어가 주어에 선행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부사어가 항상 주어에 선행해야 한다는 것은 제2 명사구와 후행 동사 사이에 다른 요소가

19) 실제 '젓내나다, 눈뜨다'는 <우리말대사전>의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이는 '젓내나다, 눈뜨다'가 완전히 어휘화한 것으로 인식됨을 보여 준다.

20) 그러나 일부의 예들에서는 제1 명사구가 생략되기도 하는데, 이는 조사 생략형이 완전히 어휘화한 경우(눈뜨다, 젓내나다 등)이거나, 제1 명사구가 생략된 형태가 쓰이는 문맥이 아주 한정되어 제1 명사구 없이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단내가 나다, 쌍심지를 쪼다 등)에 한한다. 조사 생략형이 완전히 어휘화한 경우에는 제1 명사구의 위치에 다른 명사가 사용되어 또다른 합성구를 생성해 낼 수 있다(cf. 경영에 눈뜨다, 그림에 눈뜨다 등). 이러한 유형은 사전에 등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3)의 예들과 같으나 이때는 합성동사가 이미 의미의 전이를 이룬 상태로만 사용되어 전체 '명사+합성동사' 구를 관용구로 다룰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1) 즉 '젓내가 입에서 나다, 거미줄을 입에 치다' 등은 용인되지 않는데, 이러한 어순의 제약은 일반 구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밭에서 오이가 나다'와 '오이가 밭에서 나다' '포위망을 사방에 치다' '사방에 포위망을 치다'와 같은 교체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이다.

개입할 수 없다는 제약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들 (5) (6)의 예에서의 제2 명사구와 후행 동사 사이의 결속력이 합성어와 같은 수준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5) (6)과 같은 합성구들의 사전적 처리는 다른 유형의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제1 명사구가 생략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전 안에서의 배열이 지금까지의 국어사전에서 사용한 원칙을 따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②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2 명사구와 동사가 하나의 합성어를 이룰 때 해당 합성동사의 사전적 위상을 결정짓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²²⁾

(7)의 예들은 소위 비교구문에 속하는 것으로 동사의 속성 상 두 개의 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5) (6)의 예들과 다르다. 이들 유형에서의 두 논항은 어순을 바꿀 수도 있는데, 예에 든 것과 같은 것이 기본 어순이다.

(8)과 (9)의 예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글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명사+동사’ 합성구에 드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4)의 ‘달다 쓰다 말이 없다’와 마찬가지로 절의 형태로만 관용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절을 구성하는 요소 중 어느 것도 생략할 수 없다. 특히 (9)의 ‘코를 잡아도 모른다, 코가 어디에 붙은지 모른다’ 등은 분석 기준에 따라서 명사구의 확대에 속하는 것으로 다룰 수도 있고, 동사구의 확대에 속하는 것으로 다룰 수도 있는 것인데, 참고로 예를 제시해 둔다.

3.1.4. 합성구의 후행 동사는 약 750종에 달하는데, 고유어계 단일 어간 동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4,100여개의 합성구에서 10회이상 사용된 동사의 목록을 보면 “가다, 같다, 걸다, 끊다, 끼다, 나가다, 나다, 내다, 내리다, 놓다, 놀다, 놓다, 달다, 닿다, 대다, 돌다, 돌리다, 되다, 두다, 들다, 들리다, 들이다, 떨다, 떨어지다, 떼다, 뜨다, 맞다, 맞추

22) 이는 합성구 기본형의 조사 생략형과 같은 문제이므로 3.2.에서 함께 다루기로 한다.

다, 먹다, 먹이다, 모르다, 박다, 받다, 벗다, 보다, 부르다, 부리다, 붙다, 붙이다, 빠지다, 빼다, 뽑다, 사납다, 살다, 서다, 세다, 세우다, 쓰다, 없다, 오르다, 올리다, 있다, 잡다, 잡히다, 좋다, 주다, 지다, 지르다, 짓다, 짚다, 차다, 치다, 켜다, 타다, 태우다, 터지다, 트다, 틀다, 팔다, 풀다, 피우다, 하다” 등으로, 72개의 동사 중²³⁾ 중 한자어 동사나 합성동사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⁴⁾

3.1.5. ‘명사+동사’ 합성구에서 동사구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경우는 크게 (10) ~ (12)의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 | | |
|-------------------|-------------|------------|
| (10) 딱지가 덜 떨어지다 | 손발이 따로 놀다 | 입을 딱 벌리다 |
| 한술 더 뜨다 | 사족을 못 쓰다 | 오금을 못 펴다 |
| (11) 가슴속으로 파고 들다 | 목이 붙어 있다 | 창자가 끊어 지다 |
| (11)'소매를 걷고 나서다 | 팔을 걷어 붙이다 | 팔짱을 끼고 보다 |
| (11)"가슴에 남아 있다 | 가슴에 새겨 지다 | 뒤를 대어 주다 |
| 가슴에 묻어 두다 | 가슴이 뜨거워 오다 | 곡기를 끊어 버리다 |
| (12) 간에 기별도 가지 않다 | 눈썹도 까딱하지 않다 | |
| 머리의 피도 마르지 않다 | 물불을 헤아리지 않다 | |

(10)의 예들은 일반적인 용법에서와는 달리 합성구의 관용적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사를 한정하는 부사를 필요로 하는 예들이다. ‘명사+동사’ 합성구는 기본적으로 구 구성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명사와 동사 사이에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끼어들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0)의 예에서는 부사의 개입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 관용구에서 나타나는 부사는 용법과 유형이 한정되어 있어서 관점에 따라서는 접두사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인데, ‘사족을 못 쓰다’나 ‘오금을 못 펴다’와 같은 예들이 있어서 단정 짓기는 어렵다.

23) 이들 72개 동사가 구성하는 합성구의 수는 2,800여개로 검토 대상이 된 합성구의 약 70%를 차지한다.

24) ‘나가다, 떨어지다, 터지다’ 등은 합성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단일어간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11)의 예는 동사구를 이루는 요소들을 합성동사로 다룰 수도 있고 통사적 구 구성으로 다룰 수도 있다. 실제 ‘파고 들다, 끊어지다’ 등은 합성동사로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붙어 있다’와 같은 이른바 시상의 보조 동사로 해석될 수 있는 예들은 (10)의 ‘사족을 못 쓰다’나 ‘오금을 못 퍼다’와 같이 통사적 질차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로 남는다.²⁵⁾ 중요한 것은 이들 예에서 동사구를 이루는 두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생략하면 합성구의 관용적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들을 (11)' (11)''의 예들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11)' (11)''의 예들은 동사구의 선행 요소만으로도 합성구를 이룰 수 있는바, 이른바 접속 구성에 의한 동사구의 확대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²⁶⁾

(12)의 경우는 이른바 장형 부정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긍정형과 부정형 둘 다 관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²⁷⁾ 그러나 실제 빈도면에서는 긍정형보다는 부정형이 더 자주 쓰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 (11), (12)의 예들의 사전적 처리에는 대표형 선정과 관련한 것

25) 그러나 ‘붙어 있다’의 경우 ‘목이 붙다’는 불가능하고 항상 ‘어 있’과 결합한 형태로만 쓰이는 점이 일반적인 보조 동사류의 용법과는 다르다.

26) (11)', (11)''의 예들은 기존 사전에 합성구로 등재된 것들이다. 그러나 (11)'의 예들은 ‘(팔짱을 끼고) 보다, 서다, 앓다, 기다리다’ 등 의미론적 공기관계를 어기지 않는 동사라면 어떤 것이든 확대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일일이 합성구 사전에 등재하기 어렵고, (11)''의 경우는 이른바 보조동사 ‘놓-, 두-, 버리-, 오-, 있-, 지-’ 등이 동사에 후행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합성구는 이러한 형식의 확대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역시 일일이 사전에 등재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기존 사전의 처리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어려운 것이다.

27) 이들은 부정 극어류Negative polarity items라고 할 수 있는 예들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는 이들이 항상 부정형으로만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전학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어의 부정 극어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는 시정근(1997) 참조.

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 관용구의 첫 어휘소를 중심으로 한 처리가 국어사전의 전통적인 관용구 처리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만 주 26)에서 지적한 문제와 함께 (12)의 예들이 문제가 된다. 긍정형과 부정형 중 어느 것을 대표형으로 선정할 것인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2. 조사의 생략과 조사 생략형의 형태론적 위상

3.2.1. 합성구 사전의 표제항 구성의 관점에서 이 글에서 검토대상으로 한 합성구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합성어적 성격과 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예문 (13) (14)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 (13) a. 기다리느라 **애태우는** 사람 생각도 해 주어야지요.
- b. 생사를 몰라 **애를** 얼마나 **태웠는지** 모른다.
- (14) a.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고 아주 **땀뻘뻘**.
- b. 그 친구 노여움을 달래느라고 **땀을** 이만저만 **뻘** 게 아니다.

이들 합성구는 ‘명사+조사+동사’라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지만 대부분 (13), (14) a)에서와 같이 조사가 생략될 수 있으며 그 경우 한 단어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단어형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이러한 조사 생략형을 하나의 단어(합성어)로 다룬 것이나(cf. 정원수 1992, 김정은 1995, 정동환 1995 등), 일부 사전에서 조사 출현에 관한 정보를 담지 않고 표제어로 등재한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⁸⁾

28) 기존 사전에서의 이들 조사 생략형의 처리는 사전에 따라 다르다. 대체로 중사전류의 경우는 조사 생략형을 하나의 독립된 표제어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대사전류의 경우는 ‘명사+조사+동사’ 형을 첫째 명사의 관용구 내지 부표제어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존 사전의 처리에 일정한 원칙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반면에 명사와 동사 사이에 다른 요소가 삽입될 수도 있어서 통사적 구 구성의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13) (14) b). (13), (14)의 예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조사 생략형이 비생략형보다 선호되는 경우에도 명사와 동사 사이에 다른 요소가 끼어들 경우에는 조사가 생략되지 않으며, (15)의 예와 같이 전형적인 조사 이외의 특수조사나 계사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구의 형태를 유지한다.

- (15) a. 옛이나 먹일까 보다 (cf. 옛먹일까 보다)
- b. 멋도 모르고 까분다 (cf. 멋모르고 까분다)

3.2.2. 개별 합성구에서의 조사 생략 가능성은 화자에 따라 직관에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조사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약 4,100 개의 ‘명사+(조사)+동사’ 형 합성구 중 조사 생략을 허용하지 않는 형태는 50여 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조사 생략형과 구 구성형이 함께 사용되는 것이다.²⁹⁾ 합성구에서의 조사 생략은 완전히 규칙화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경향은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 파악된 이들 조사 생략과 관련된 일반적 경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주격 및 대격조사 이외의 조사가 개재되는 합성구에서는 대체로 조사 생략이 불가능하다(예. 가슴에 멧히다, 개발에 땀나다, 눈밖에 나다, 컷등으로 든다, 먼전으로 돌다),
- ② 후행하는 동사가 파생어이거나 복합어인 경우 격조사의 생략이 자연스럽게 않다(가슴이 뜨끔하다, 가슴이 내려앉다, 간이 콩알만해지다).
- ③ 관형어로 사용될 때 조사 생략이 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29) 이 숫자는 전형적인 조사 결합형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예를 들어 ‘헛물을 켜다’의 경우 대격조사가 생략된 ‘헛물켜다’와 특수조사 결합형 ‘헛물만 켜다’ 등이 공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격형을 전형적인 합성구의 형태로 보고 특수조사 결합형은 변이형으로 보아 조사 생략이 가능한 형태로 분류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문헌에서의 구 구성형의 비율은 이보다 늘어날 것이다.

- ④ 선행 명사를 수식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조사는 생략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 ⑤ 선행 명사와 후행 동사 사이에 다른 수식 요소가 개재하는 경우, 조사는 생략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3.2.3. 조사 생략형과 통사적 구 구성형의 병존은 이들 형태에 대한 형태론적 해석 및 사전적 처리에 있어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

첫째로 조사 생략형을 하나의 단어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3.2.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단어형성을 다루는 경우 대체로 이들을 하나의 단어로 다루고 있으며, 한국어 화자의 직관으로도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점을 중시한다면 이들 중에서 조사 생략형은 당연히 사전의 표제어로서의 자격을 가진다.³⁰⁾ 문제는 이들 조사 생략형과 함께 두 개의 어기 사이에 제3의 요소가 개입한 형태 즉 구 구성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합성어의 두 어기 사이에 제3의 요소가 개입할 수 없다고 하는 일반적인 단어에 대한 정의에 배치되는 것이다.³¹⁾

둘째는 조사 생략형과 구 구성형 중에서 어떤 것을 사전의 표제항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사전 사용

30) 이선희·조은(1994)에서는 조사생략형이 직설적 의미만을 지니며 또 조사생략형의 생성이 형태론적 절차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사전의 표제항으로 등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들은 대부분 직설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거나 일반적인 구에 비해서 긴밀한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전적 처리에 관한 이선희·조은(1994)의 결론은 적절하지 않다.

31) 한 예로 합성어로서의 성립과 관련한 홍재성(1993b : 280)에서의 기술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합성표현은 그 내적 구성이 자유로운 통사적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전체가 하나의 단어와 같은 기능을 갖는 연속적인 - 구성요소의 이동이나 삭제, 특히 분리에 의한 제삼요소의 삽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 연쇄를 가키며 합성명사, 합성부사, 합성형용사, 합성동사 등의 어휘범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문제인 바,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없는 학습자를 위한 사전의 경우 특히 3.2.1. 및 3.2.2.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양상에 대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

4. 합성구의 변이

4.1. 어휘적 변이

4.1.1. 어휘적 변이란 합성구의 구성 요소 중의 하나가 다른 어휘로 대체되지만 전체 구의 의미는 유의 관계에 놓이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어휘적 변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합성구를 구성하는 명사나 동사 중의 하나가 다른 단어로 대체되는 경우이고, 둘째는 합성구의 명사 부분이 다른 어휘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핵심어를 지니는 합성어로 교체되는 경우이다.

4.1.2. 합성구를 구성하는 명사나 동사 중의 하나가 다른 단어와 대체되는 경우는 명사, 동사 양쪽에 다 나타날 수 있으며 유의어 관계에 놓이는 단어로 대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³²⁾ 그러나 유의어 관계에 놓인다고 하기 어려운 단어로 대체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16) a~c 경우 “아주 걱정이 심하다”는 의미를 지니는 표현들인데, ‘간, 가슴, 간장, 복장, 애, 속, 애간장’이라는 7개의 명사와 ‘눅다, 달다, 타다’라는 3개의 동사가 서로 대체되어 사용되면서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서로 통합되는 데에는 제약이 있어서 모든 경우의 조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간이 달다, 가슴이

32) 경우에 따라서는 반의어로 대체되어 전체 구의 의미 역시 서로 대체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경우 역시 어휘적 변이의 한 유형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늑다, 속이 늑다' 등은 용인되지 않는 것이다. 또 유의어 관계에 놓이는 단어라고 해서 전부 대치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17)의 예에서 보듯 '해고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목을 자르다·목을 치다'의 경우, 직설적 용법으로는 '목을 베다'와 유의어 관계에 놓이지만 관용적 용법으로는 '목을 자르다·목을 치다'만이 가능할 뿐 '목을 베다'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³³⁾

이들 어휘적 교체에 의한 변이형들은 의미의 전형성이나 사용 빈도라는 측면에도 차이가 있다. (16b)의 예 중에서는 '간장이 타다'보다는 '애간장이 타다'가 더 자주 쓰이는 표현이며 "아주 걱정이 심하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데에 전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³⁴⁾

- (16) a. (간·간장·애·애간장)이 늑다
- b. (가슴·간·간장·복장·속·애·애간장)이 타다
- c. (몸·속·애·애간장)이 달다
- (17) a. 해고하다 = 목을 자르다·목을 치다 ≠ 목을 베다
- b. 참수하다 = 목을 자르다·목을 치다 = 목을 베다

4.1.3. 어휘적 변이의 또다른 유형으로 해당 합성구의 명사 부분이 다른 어휘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18)의 예와 같이 동일한 핵심어를 지니는 합성어끼리 교체가 일어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18) a. (도시·미국·서울…) 물을 먹다
- b. (합격·이사·특남…) 턱을 내다
- c. (서울·유학·과거…) 길을 떠나다

33) 이는 '자르다'와 '베다'의 의미 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어떤 대상을 '자르'는 경우 '잘림'의 대상은 원래의 구성체에서 분리되지만, '베'는 경우는 '베임'의 대상이 원래의 구성체에서 분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4) 실제 현대 국어의 여러 가지 텍스트에서 출현하는 합성구의 빈도는 사전 편찬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정보는 정리된 적이 없다.

d. (사장 · 선생 · 경비…) 자리가 나다

이때 출현하는 합성어는 어휘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닌 임시어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명사구 부분을 합성어가 아닌 명사구라고 분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통사적 구 구성의 확대로 해석해야 할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 (19) a. (나쁜 친구, 나쁜 패거리, 좋지 않은) 물이 들어서...
- b. (제, 제 아들, 제 자식) 밑이 구린 것은 모르지...
- c. (밑천, 제 밑천, 가진 밑천) 바닥을 봐야 직성이 풀리지...

문제는 (18)의 예에서와 같은 임시어는 사전에 등재되지도 않으면서 합성구의 한 부분을 이룬다는 점이다. (18)의 예들의 구조는 $[X[N V]_v]_v$ 또는 $[[[X[N]_N V]_v]_v]_v$ 라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전자와 후자 중 어느 것을 택하는가는 어휘부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인데, 동사 합성구 사전이나 일반 언어사전에서의 이들 합성구에 대한 처리는 통사적 구 구성과 어휘적 교체를 효율적으로 통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4.2. 형태적 변이

4.2.1. 형태적 변이란 ‘명사+동사’ 구성을 이루는 형태소의 일부가 다른 형태소로 교체되거나 전체 구의 형태론적 구성이 달라지는 것을 가리킨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는 조사 교체와 어미 교체를 들 수 있다 (혼한 것이므로 예는 생략한다). 이 경우 합성구의 기본구조에는 변함에 없지만, 문법적인 기능을 지닌 형태소의 교체를 통해서 문장 안에서의 기능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이는 사전적 처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4.2.2. 형태적 변이의 또 한 가지는 (20)의 예와 같이 합성구가 전체가 어휘화하는 것이다. 이 때의 어휘화는 조사가 생략되어 합성동사의 형태를 지니게 된 상태에서 생산적인 파생접사에 의해 명사화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새로 생성된 명사가 서술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기능동사류와 결합하여 전체 구가 어휘화 이전의 합성구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또다른 합성구를 생성할 수도 있다.

- (20) a. 가슴을 앓다 ⇒ 가슴앓이를 하다
 b. 가위 놀리다 ⇒ 가위놀림을 당하다
 c. 머슴을 살다 ⇒ 머슴살이를 하다
 d. 말을 읊기다 ⇒ 말읊김(질)을 하다
 e. 뒷손을 쓰다 ⇒ 뒷손쓰기를 하다
 f. 가슴이 설레다 ⇒ 가슴설렘에 빠지다³⁵⁾

(20) a, b, c의 ‘가슴앓이, 가위놀림, 머슴살이’ 등은 각각 사전의 표제항으로 등재된 것이다. 그러나 (20) d, e, f의 예에서와 같이 새로 생성되는 합성명사는 임시어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대개 사전의 표제항으로 등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 생성된 명사와 동사가 결합한 합성구 역시 사전에 등재되지 않는다.

‘가슴을 앓다 ⇒ 가슴앓이다’와 같은 과정에 의한 단어 형성을 1차 조어과정이라고 한다면, ‘가슴앓다 ⇒ 가슴앓이’는 2차 조어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1.3.에서 언급한 ‘구두닥이’형 합성명사와 ‘거침없이’류의 부사들이 바로 2차 조어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파생어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가슴앓이하다, 말읊김질하다’ 등은 3차 조어과정을 통한 합성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사 합성구의 사전적 처리에서는 특히 이러한 2, 3차 조어과정에 의해 생성된 단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35) 이 예는 김윤식 저 『운명과 형식』(도서출판 숲 간, 1992, p17)에 실제 출현하는 것이다. 해당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하루종일 때무기와 까마귀 그리고 포플라 숲을 벗어나 지내다가 저녁 들찌누님 앞에서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가슴설렘에 빠지곤 했는데, 국민학교에 다니는 누님의 책에서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2.3에서 다룬 고재철(1992), 시정곤(1993), 이선희·조은(1994) 등에서 논의의 초점은 2차 조어과정의 어기가 되는 요소의 생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놓여 있다. 그러나 사전적 처리에서의 문제는 2차 혹은 3차 조어과정의 어기가 되는 요소들이 어휘부 안에서 어떤 위상을 지니며, 사전적으로 그들 2, 3차 조어과정의 어기가 되는 요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2, 3차 조어 과정의 어기 처리 문제는 ‘이상스레, 복스러이’ 등 접미사에 파생된 형용사에 다시 파생 접미사가 결합하여 부사를 생성하는 경우에도 제기되는 것이다. 이는 이 글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문제만을 제기해 둔다.

4.3. 통사적 변이

4.3.1. 통사적 변이란 통사 구조의 변형을 통해서 기본형과 다른 구문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부정 변형과 사·피동화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4.3.2. 부정 변형은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국어 부정법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그 기술이 간단하지 않다. 그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어의 부정법은 기본적으로 ‘안’ 또는 ‘아니’에 의한 부정이 일반적이지만, ‘못’ 및 ‘말-’에 의한 부정도 가능하며, 이 경우 어휘에 따라서 그 제약이 달라진다. 또 부정문과 긍정문의 사용 분포가 다른 경우도 있다. (21)의 예와 같이 수사어문만 긍정문 형태가 용인되면서 평서문에서는 부정문만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22)와 같이 야예 긍정문은 사용되지 않거나 긍정문과 부정문의 의미상의 내포가 다른 것들도 있다.

- (21) a. 그래봤자 눈썹이나 까딱하겠소?
- b. 그래봤자 눈썹도 안 까딱한다.
- c. 그래봤자 눈썹도 까딱하지 않는다.
- d. 그래봤자 눈썹도 까딱 않는다.

- | | |
|---------------|------------------|
| (22) 팔갈지 않다 | 물불을 헤아리지 않다(못하다) |
| 객소리도 안하다(못하다) | 부접을 못하다 |

부정문이 긍정문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관점에서는 이들에 대해서도 일단 긍정문을 표제항으로 삼고 그 미시구조에서 이러한 변이의 내용을 다루려 할 것이지만, 그러한 처리가 이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4.3.3. 사·피동 변형 역시 자주 나타나는 것인데, 통사이론의 면에서 이들을 어휘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통사적 변이형으로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시된다면 사전 편찬의 관점에서는 이들 사이의 관계를 여하히 드러낼 것인가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형에서는 서로 유의관계에 놓이는 합성구라 하더라도 통사적 변형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3)의 예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 (23) a. 목이 날아가다 ⇔ 목을 날리다
 b. 목이 달아나다
 c. 목이 잘리다 ⇔ 목을 자르다
 d. 목이 떨어지다 ⇔ 목을 떨어뜨리다

5. 마무리

5.1. 지금까지 우리는 이 글은 ‘명사+(조사)+동사’의 구조로 이루어진 합성구 중에서 관용적 용법을 가진 것들의 형태론적 특징과 그 변이 양상을 정리해 보았다. 이 글에서의 논의는 특히 사전 편찬에서 그 처리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둔 것이었는데, 단어 형성 과정으로 설명될 수도 있는 일반 합성구와는 달리 이들 관용적 의미를 지니는 합성구들은 하나하나가 사전에 등재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고, 구체적 예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5.2. ‘명사+(조사)+동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관용적 합성구는 하나의 동사와 하나의 명사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지만 선행 명사구나 후행 동사가 둘 이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명사구의 구조적 확대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① 합성구의 선행 명사구를 수식하는 관형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 ② 둘 이상의 논항 명사구를 요구하는 경우의 두 유형으로 나뉘며, 전자가 합성구를 이루는 명사의 문법적 특성 때문이라면, 후자는 동사의 속성상 둘 이상의 논항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합성구의 후행 동사는 고유어계 단일 어간 동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명사+동사’ 합성구에서 동사구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① 합성구의 관용적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사를 한정하는 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둘 이상의 동사로 이루어지는 경우 ③ 이른바 장형 부정의 형태를 지니는 경우의 세 가지로 나뉜다.

5.3. 합성구 사전의 표제항 구성의 관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합성어적 성격과 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인데, 이들 합성구는 ‘명사+조사+동사’라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지만 대부분 조사가 생략될 수 있으며 그 경우 한 단어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명사와 동사 사이에 다른 요소가 삽입될 수도 있어서 통사적 구 구성의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조사 생략형이 비생략형보다 선호되는 경우에도 명사와 동사 사이에 다른 요소가 끼어들 경우에는 조사가 생략되지 않으며, 전형적인 조사 이외의 특수조사나 계사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구의 형태를 유지한다.

개별 합성구에서의 조사 생략 가능성은 화자에 따라 직관에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조사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합성구에서의 조사 생략은 완전히 규칙화할 수는 없지만 이들 조사 생략과 관련된 일반적 경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주격 및 대격조사 이외의 조사가 개재되는 합성구에서는 대체로 조사 생

략이 불가능하다(예. 가슴에 맺히다, 개발에 땀나다, 눈밖에 나다, 콧등으로 듣다, 먼전으로 돌다),

- ② 후행하는 동사가 파생어이거나 복합어인 경우 격조사의 생략이 자연스럽지 않다(가슴이 뜨끔하다, 가슴이 내려앉다, 간이 콩알만해지다).
- ③ 관형어로 사용될 때 조사 생략이 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 ④ 선행 명사를 수식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조사는 생략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 ⑤ 선행 명사와 후행 동사 사이에 다른 수식 요소가 개재하는 경우, 조사는 생략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5.4. 이들 합성구는 다른 어휘들과 마찬가지로 어휘적·형태적·통사적으로 다양하게 변이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전편찬의 관점에서 특히 어휘적 변이와 형태적 변이의 처리가 간단하지 않은 문제로 제기된다. 특히 유의 관계에 놓이는 것들의 처리를 위해서는 합성구의 의미적 전형성 및 사용빈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어휘적 변이의 처리를 위해서는 2·3차 조어과정에 참여하는 어기의 어휘론적 위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통사적 변이형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상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는데, 특히 긍정문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부정 형태 및 사·피동형의 처리가 일반적인 단어 형성의 관점에서 다루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참고문헌

고영근(1989), <국어형태론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고재철(1992), “‘구두땀이’형 합성명사에 대하여,” <서강어문> 8집, pp.17-46, 서

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김광해·김동식(1993), <국어사전에서의 합성어의 처리를 위한 연구>, 국립국어 연구원.
- 김문창(1974), “국어 관용어의 연구,” <국어연구> 30, 서울 : 국어연구회.
- 김문창(1990a), “숙어개념론,” <기독교 강신학교수 회갑기념 국어학논문집>, 서울 : 태학사.
- 김문창(1990b), “관용어,”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 : 동아출판사.
- 김정은(1995), <국어 단어형성법 연구>, 서울 : 도서출판 박이정.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서울 : 태학사.
- 박영순(1985), “관용어에 대하여,” <선암 이을환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심재기(1986), “국어관용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관악어문연구> 1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시정곤(1993), “부사화접사 ‘-이’의 통사적 해석,” <어문논집> 32, pp. 473-494,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 시정곤(1997), “국어의 부정국어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19, pp. 47-78, 국어국문학회.
- 안경화(1987), “한국어 숙어의 유형에 대한 분석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양영희(1995), “관용표현의 의미 구현 양상,” <국어학> 26, pp. 171-200, 국어학회.
- 유현경(1996), <국어 형용사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논문.
- 이상익(1993), “관용표현과 합성어의 분석 및 어휘부 내에서의 처리,” <어학연구> > 29-3, pp. 327-34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이익섭(1975), “국어 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 5, pp. 155 - 16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이선희(1993), “한국어 복합술어 구문에 대하여,” <말> 18, pp. 119-149, 연세어학원 한국어학당.
- 이선희·조은(1994), “통사부의 핵이동에 대하여,” <우리말글연구> 1, pp.237-263, 우리말학회.
- 이정민(1993), “Frozen Expressions and Semantic Representation,” <어학연구> 29-3

pp. 301-326,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이희자(1994), “현대국어 관용구의 결합 관계 고찰,” <제6회 한글 및 한국어 정 보처리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333-352, 한국정보과학회.

임홍빈(1979), “용언의 어근 분리 현상에 대하여,” <언어> 4-2, pp. 55-76, 한국언 어학회.

정동환(1995), <국어 복합명사의 의미구조 연구>, 서울 : 서광학술자료사.

정원수(1992), <국어의 단어형성론>, 서울 : 한신문화사.

한영균(1996), “불규칙어기류의 사전적 처리 - 한국어 처리 시스템용 사전 구성 의 관점에서,” <인문논총> 10, pp. 215-227,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 소.

한영균(준비중), “‘명사+동사’ 합성구의 사전적 처리”

한영균(준비중), “<현대국어 동사합성구사전>의 표제항 선정의 기준과 실제”

한정길(1986), “숙어표현에 대하여,” <어학연구> 22-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홍재성(1986), “현대 한국어 대칭구문 분석의 한 국면,” <동방학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홍재성(1987) 재수록.

홍재성(1987),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의 연구>, 서울 : 탑출판사.

홍재성(1988), “한국어 사전에서의 동사항목의 기술과 사전정보,” <사전편찬학 연구> 제2집, 서울 : 탑출판사.

홍재성(1992), “동사 먹다의 사전적 처리를 위한 몇 가지 논의,” <새국어생활> 2-2, pp. 14-37, 국립국어연구원.

홍재성(1993a), “약속의 문법 : 서술명사의 어휘·통사적 기술과 사전,” <동방학 지> 제81집, pp. 213-25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홍재성(1993b), “먹다 숙어동사구문의 통사적 기술,” <어학연구> 29-3, pp. 279-299,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홍재성(1995), “한·불사전의 명사항목 구성,” <불어불문학연구> 30, pp. 1167-1184, 불어불문학회.

Battenburg(1989) *A Study of English Monolingual Learners' Dictionaries and Their Users*, Ph. D. dissertation, Perdue University.

The Collins COBUILD Dictionary of Phrasal Verbs(1989), London, Glasgow : HarperCollins.

- Cop, M.(1989) 'Collocations in the Bilingual Dictionary,' in *Encyclopédie Internationale de Lexicographie*, Berlin, NewYork : Walter de Gruyter.
- Cowie, A.P. & R. Mackin(eds.) (1975/1985) *Oxford Dictionary of Current Idiomatic English*, pp vi- lxix, Oxford University Press.
- Cruse, D.A.(1986), *Lexical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임지룡 윤희수 공역(1989) 어휘의미론 경북대학교 출판부)
- Moon, Rosamund(1996), 'Data, Discription, and Idioms in Corpus Lexicography,' *Euralex'96 Proceedings I-II : Part I*, pp. 245-256, Department of Swedish, University of Göteborg.
- Pye, Glennis(1966) 'Don't Give up, Look it up! Defining Phrasal Verbs for Learner of English,' *Euralex'96 Proceedings I-II : Part II*, pp. 697-704, Department of Swedish, University of Göteborg.
- Sinclair, J.M.(1991), *Corpus, Concordance, Collo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680-749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2동 산29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e-mail yghan@uou.ulsan.ac.kr